

서남권산단 '미래형 혁신산단' 전환

'대블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개소...저탄소·친환경·디지털 융합 805억 투입...통합 관제센터, 스마트 에너지·물류 플랫폼 등 구축

조선산업의 중심지이자 전남 서남권 산단대개조 사업의 거점 산단인 대블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을 주도할 사업단이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는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블지사서 '대블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개소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우승희 영암군수, 손남일 전남도의원,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고창희 대블산단경영자협의회장 등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블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은 대블국가산단 등 서남권 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디지털 기술을 더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통합 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산단 대개조 핵심 6개 사업에 총사업비 805억원을 투입한다. 박창환 부지사는 "대블국가산단 등을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의 미래산단으로 멋지게 탈바꿈토록 하겠다"며 "대블국가산단이 산단대개조 사업 대상지 중 제일 성공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이사장은 "대블산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는 필수"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전환,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통해 대블국가산단 등을 혁신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산단대개조 사업은 대블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영암 삼호, 목포 삼진,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해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의 미래산단으로 대개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5년까지 27개 사업에 총 36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농어촌 교통복지에 관심을"

기자 간담회서 민생 지원 요청

"수도권 교통복지에 앞서 농·어촌 교통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열악한 농·어촌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람·돈·정보·기업 뿐 아니라 기회까지 서울에 집중되면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연적 의미가 아닌, 지방 위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00원 택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100원만 내면 면소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면 소재지 이하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본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 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 물을 향한 섬 주민들의 설움을 곱씹어보고 이들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교통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역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민생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3월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책, 7월 물가안정 대책, 12월 경제위기가 몸대책 등에 이어 경제위기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지원을 위해 414억원 규모의 '4차 긴급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차 긴급 민생 대책은 급등하는 난방비로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20만원씩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 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연료비 증가분의 30%인 93억원 지원 방침도 마련했다. 연안여객선 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연료비 증가분의 25%인 14억원 투입 계획도 내놓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15일 오후 담양 창평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오른 '담양 딸기' 상차식이 열렸다. 이번에 선적된 담양 딸기(품종 설향)는 미국 수출용 1000kg 중 1차 물량 100kg으로 미 동부지역 현지 프리미엄 마켓에 납품될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 딸기, 올 첫 미국 수출길

창평농협서 상차식...태국·일본 등 판로 확대

전남도 담양군이 15일 담양 창평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올해 첫 번째 담양 딸기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출은 담양 딸기를 생산하는 19개 농가로 구성된 창평새벽이슬영농조합법인과 지역 수출 전문기업 영농조합법인광수, 한국바이오헬스케어 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굴한 미국 내 대형 식품 구매자를 통해 성사됐다. 이날 선적된 담양 딸기(품종 설향)는 미국 수출용 1000kg 중 1차 물량 100kg으로 미 동부지역 현지 프리미엄 시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상차식에서 "최근 전 세계적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 전남산 식품이 글로벌 식품시장에

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전남 딸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품종 개발과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 딸기는 맛과 당도가 특히 좋아 국내 유통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돼 수출용 딸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안정적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해 담양군과 생산 농가, 수출 기업 등이 적극 협력해 수출하게 됐다. 전남 딸기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은 물론 딸기 중추국 일본으로까지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위생업소 가스 요금 분할 납부 광주시,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15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위해 겨울철 가스 요금의 분할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분할 납부 대상은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다.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1~3월분 요금을 4~6월 말까지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1월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2~3월 청구 요금을 3개월 납부 유예해준다. 3월 17일까지 해양에너지 고객센터(1544-1115)로 신청하면 되고, 광주시의 인허가와 신고된 업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1인 가구 고립감·건강 상태 살핀다

3대 이음 정책 추진...모바일 안심 돌봄 등 14개 과제 제시

광주시에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지역 사회와 잇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21만 2385 가구로 비율(34.5%)은 전국 평균(33.4%)보다 높았다. 연도별 비율도 2018년 30.2%, 2019년 31.1%, 2020년 32.4% 등으로 해마다 높아졌다. 광주시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로 하고 '3대 이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안심 이음', 고립감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한 '돌봄 이음', 사회적 관계

강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서로 이음'이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등 안심 이음 4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등 돌봄 이음 6개,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등 서로 이음 4개 등 14개 과제도 제시했다. 5개 자치구 또는 자치구와 복지 시설·기관 연합체를 대상으로 1인 가구 지원 특성화 사업도 공모해 다음 달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임영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1인 가구 특성화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체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5억원 투입...경유차→LPG 신차 교체시 1대당 700만원

광주시는 15일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5억4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 77대를 LPG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경유차에서 LPG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다. 광주시는 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기존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 없이 작년 11월 1일 이후부터 올해 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6일 공고 때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일부터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접수일이 같은 경우 보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대상을 우선 선정한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해 451대를 교체했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를 친환경 LPG차로 교체하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결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